

대명사

장경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대명사는 전통적으로 명사를 대신하여 쓰인다는 관점에서 범주화되었고 기술, 설명되었다. 화용론적 관점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대명사가 지니는 ‘가리킴’의 기능이 크게 주목되었으며, 가리킴의 기능은 ‘상황 지시(deixis)’, ‘조용(anaphora)’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대명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대명사 범주에 관하여는 그 범주 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대명사의 본질과 범주 설정의 문제

1.1. 대명사의 본질

대명사로 범주화되어 온 ‘나’, ‘너’, ‘이애’, ‘이것’, ‘여기’ 등은, 화자를 기점으로 하여 주변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리킴의 주체이며, 가리킴의 기점이 되는 화자 자신은 ‘나’로,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방은 ‘너’로 가리키며, 화자와 청자 이외에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 사물, 장소, 방향 등은, 원근의 개념을 지닌 ‘이’, ‘그’, ‘저’를 사용하여, 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이애’, ‘이것’, ‘이

곳’, ‘이리’ 등으로 가리키고,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그애’, ‘그것’, ‘그곳’, ‘그리’ 등으로 가리키며, 화자와 청자에게 공히 멀리 있는 것은 ‘저’를 사용하여 ‘저애’, ‘저것’, ‘저곳’, ‘저리’ 등으로 가리킨다.

‘이’, ‘그’, ‘저’가 결합된 가리킴 표현 가운데는, ‘이애’, ‘이것’ 등의 형식 이외에도 ‘이 학생’, ‘이 가방’ 등과 같이 일반 명사가 사용된 형식이 있다.

- (1) 순이야, **이 가방** 좀 들어.
- (2) 순이야, **이것** 좀 들어.

(1)의 ‘이 가방’과 (2)의 ‘이것’ 둘 다 ‘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이것’만을 대명사로 파악한다.

‘이것’은 ‘이 가방’에 비해 사용 범위가 넓어 지시 수행상의 효율성이 크다. ‘이것’은 가방에 대한 지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책, 나무, 꽃, 가방 등의 수많은 유형의 사물들을 지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가 있다. 사물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러한 효율성을 볼 때, ‘이’, ‘그’, ‘저’에 상위 명사 또는 의존 명사가 결합된, ‘이애’, ‘이것’, ‘이곳’ 등의 형식을 ‘이 학생’, ‘이 가방’, ‘이 학교’ 등과 구분하여 따로이 범주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들을 대명사로 범주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1.2. 대명사의 범주 설정

‘이애’, ‘이것’, ‘이곳’ 등의 가리킴 말은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된다는 관점에서 ‘대명사’로 범주화되어 왔지만, 이들의 기능은 ‘대신 쓰임’의 기능보다는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상황 지시’의 기능을 본질로 한다. ‘나’와 ‘너’는 대화 현장에서만 쓸 수 있으며, 제삼자나 사물을 지시하는 ‘이애’, ‘이것’, ‘이곳’ 등에 결합된 ‘이’, ‘그’, ‘저’는 공간상의 원근(遠近) 개념을 그 의미로 지닌다. 따라서 명사를 대신한다는 관점의 ‘대명사’ 범주 설정은 타당하다

고 볼 수 없으며, ‘대명사’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못하다.

‘대명사’ 범주 설정의 어려움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발견된다. 전통적으로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방향 등을 가리키는 말들을 포괄하는데, 국어에서는 사람, 사물 등의 영역 이외에 상태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 ‘그’, ‘저’가 결합된 가리킴 말이 존재한다. (3-4)에서는 상태 또는 움직임을, ‘이’, ‘그’, ‘저’가 결합된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또는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등을 사용하여 가리키고 있다.

(3) 순이: (봉투를 내어 놓음.)

민수: ㄱ. {① **이러시면** ②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① **이런** ② **그런**} 걸 가져 오시면 안 됩니다.

ㄷ. {① **이렇게** ②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4) 순이: (저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

민정: ㄱ. **저런**다고 뭐가 되나?

나. **저런** 아이는 없을 거야.

ㄷ.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올 거야.

상태나 동작을 가리키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등도, 원근 거리에 따른 가리킴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어의 가리킴 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국어의 가리킴 말>

가리킴의 내용 대상의 위치	사람	사물	장소	방향	시간	상태 및 동작
가리킴의 기점	화자: 나, 우리 청자: 너, 너희					
화자 근접 공간	이애, 이이, 이분	이것	여기, 이곳	이리, 이쪽	이때	이렇다, 이러다
청자 근접 공간	그애, 그이, 그분	그것	저기, 그곳	그리, 그쪽	그때	그렇다, 그러다
화·청자 비근접 공간	저애, 저이, 저분	저것	저기, 저곳	저리, 저쪽	저때	저렇다, 저러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동사에도 ‘이’, ‘그’, ‘저’가 결합된 가리킴 말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국어에서 대명사 범주를 설정하려면, 상태와 움직임의 지시에 사용되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등에 대해서도 대동사, 또는 대용언과 같은 범주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영역에 한정하여 대명사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국어에서는 사람 가리킴 말, 사물 가리킴 말뿐만 아니라, 상태 및 움직임 가리킴 말까지를 포괄하는 범주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 ‘이곳’ 등의 사물 가리킴 말과 ‘이렇다’, ‘이러다’ 등의 상태 및 움직임 가리킴 말은 형태, 통사, 의미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들을 품사의 차원에서 범주화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국어의 가리킴말을 포괄하는 범주는 단어의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다. 이들 단어가 공통으로 지니는, 현장 상황에서의 원근 거리에 따른 가리킴의 기능, 즉 ‘상황 지시’의 기능에 근거하여 국어의 가리킴 말을 ‘상황 지시어(狀況指示語)’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황 지시어의 범주는 단어들의 내용에 따라 다시 하위 구분될 수가 있다.

2. 상황 지시어의 기능

언어로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키는 기능을 지시(reference)라고 한다. 지시 기능을 지니는 표현을 지시 표현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지시 표현에는 고유 명사, 수식절을 지닌 명사구, ‘이’, ‘그’, ‘저’를 지닌 상황 지시어나 상황 지시어구 등이 있다. 상황 지시어가 지니는 기능은 나머지 지시 표현들이 지니는 지시 기능과 차이가 있고, 그 기능도 몇 가지로 하위 구분이 가능하다.

2.1. 지시(reference)와 상황 지시(deixis)

고유 명사, 수식절을 지닌 명사구, 상황 지시어가 지니는 지시 기능의 차이를 보기로 한다. (5)의 ‘순길’이나, (6)의 ‘영호가 산책’, (7)의 ‘이 가방’, (8)의 ‘이것’ 등을 사용하여 우리는 세계의 특정 대상을 가리킬 수가 있다.

- (5) **순길**이는 학회에 안 갈 것 같아.
- (6) **영호가 산책**을 순이가 보고 있어.
- (7) **이 가방**을 순이가 가져 왔어.
- (8) **이것**을 순이가 가져 왔어.

이들 지시 표현들이 지시를 수행하는 원리와 지시의 기능을 살펴보면, 고유명사 ‘순길’이는, 순길이라는 개인이 지닌 모든 속성을 의미로 지니며 이 의

미에 따라 세계에 존재하는 순길이라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고유 명사는 개체 속성 자질의 집합으로 사물을 지시하는 지시 표현이며, 지시 대상이 현장에 있거나 없거나 사용될 수 있는 지시 표현이다. 수식절을 지닌 (6)의 경우는 ‘영호가 산’이라는 수식절의 정보가 ‘가방’이라는 사물의 유형 가운데 특정한 가방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사구 형식의 지시 표현도 현장이나 비현장의 대상을 모두 지시할 수가 있다.

(7-8)의 ‘이것’, ‘이 가방’ 등과 같은 지시 표현들은, ‘이’, ‘그’, ‘저’의 원근 개념으로 현장에 있는 사물의 위치를 가리키고 뒤에 결합된 명사나 상위 명사로 사물의 유형을 알림으로써 세계의 사물을 가리킨다.¹⁾ 현장에서의 원근 거리에 따른 이러한 지시 기능을 고유명사나, 수식절을 지닌 명사구가 수행하는 지시와 구별하여 ‘상황 지시(deixis)’라고 한다.²⁾ 상황 지시의 기능은 언어가 지니는 지시 기능 가운데 원시적 형태이며 또한 가장 주가 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2.2. 언어 맥락 지시와 상맥(想脈) 지시

상황 지시어들은 대화 현장 상황에서 수행되는 상황 지시의 기능을 본질

1) 일반 명사라도 사물을 지시할 수는 있다. 아래 (1)에서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여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명사 ‘가방’ 자체는 ‘특정성’이나 ‘원근의 위치’ 개념등의 의미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단어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상황 맥락적인 해석에 의해 가리킴의 기능이 수행된다.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이 전제되지 않은 (2)의 경우 ‘가방’은 지시물을 지니지 못하며 지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1) 순이야 **가방** 좀 들어.

(2) 나도 **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2) 상황 지시(deixis)의 기능은, ‘화시’, ‘직시’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상황 지시를 수행하는 언어 형식들은 ‘상황 지시어(deictic term)’, ‘화시어’, ‘직시어’ 등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는 현장의 대상에 대한 가리킴의 기능이 드러나는 ‘상황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로 지니면서도, 언어 맥락이나 정보 맥락에서 지시를 수행할 수가 있다. 다음의 (9-11)에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대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 (9) 나 어제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어. **걔**도 너와 같은 말을 하더라.
- (10) 나는 책을 하나 샀어. **이것**을 보내야겠어.
- (11) 순이집 옆에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네 동생을 본 것 같아.

(9-11)의 ‘그애’, ‘이것’, ‘그곳’ 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의 발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며, 이때의 지시 기능은 상황 지시와는 구별되는 언어 맥락 지시이다.³⁾

상황 지시와 언어 맥락 지시는 지시하는 대상이 현장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도 있지만, 이들 지시는 지시 수행에서 참조되는 정보 내지 맥락이 다르다.

(12)(가방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샀니?

(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 지시에서는 존재하는 대상의 위치에 대한 현장 상황의 정보, 즉 화자와 대상과의 원근 거리가 참조되어 지시가 이루어진다. 사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여 화자는 지시 대상을 가리키고 또 한편 청자는 현장의 위치를 참조하여 상대방의 지시를 이해하고 지시물을 찾아낸다.

이와는 달리 언어 맥락적 지시에서는 언어 맥락상의 정보가 참조되어 세계의 사물에 대한 지시가 수행된다.

3) 이러한 지시는 기호적 지시, 언어적 지시, 문맥 지시, 조용(지시) 등으로 불리고 있다.

(13) 나도 어제 가방을 하나 샀어. **그것**을 가져 갈까?

(13)의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내가 어제 산 가방’이다. 이때의 지시는 선행 맥락을 참조하여 수행된 것이며, 청자도 선행 맥락과 관련지어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지시물을 찾아낸다. (13)의 선행어 ‘가방’이 지시하는 것은 많은 책 가운데 어떤 특정한 책을 말하며, 후행의 지시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책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어제 샀다’는 맥락 정보를 포함한 내가 어제 산 책을 가리킨다. 즉 언어 맥락 지시에서의 지시 내용은 언어 맥락적인 정보까지를 포함한다.

언어 맥락 지시는 대화 현장에 사용되는 상황 지시의 원근 개념이 화자와 청자의 언어 맥락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발달된 기능인데, 수행 형식으로는 ‘이’와 ‘그’만이 쓰이고 ‘저’는 사용되지 않는다.

(14) 나 어제 어떤 아이를 만났어. 그런데 {① **애** ② **개** ③ ***재**}도 나한테 너와 같은 질문을 했어.

(15) 나는 책을 한 권 샀어. {① **이결** ② **그결** ③ ***저결**} 영호에게 보낼 생각이야.

위의 (14-15)는 화자 자신의 언어 맥락과 관련된 지시인데 ‘이’와 ‘그’는 사용될 수 있지만, ‘저’는 쓰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16-17)에서 보듯이, 언어 맥락이 청자의 것인 경우, 즉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 ‘이’도 쓰이지 못하고 ‘그’만이 쓰인다.

(16) 영수: 우리 옆집에 한양대 다니는 아이가 있어.
 순이: {① ***이애** ② **그애** ③ ***저애**} 한테 물어보자.
 (17) 영수: 나는 책을 하나 샀어.
 순이: {① ***이결** ② **그결** ③ ***저결**} 순이에게 주려므나.

대화 상황 지시에서 ‘이’, ‘그’, ‘저’가 쓰이면서 언어 맥락 지시에서 ‘이’와 ‘그’만이 쓰이는 사실도, 언어 맥락 지시가 상황 지시에서 발달된 것임을 보여 준다. 언어 맥락적 지시를 수행하는 형식 가운데는 맥락적인 정보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선행어가 지닌 지시물만을 재지시하는 형식들도 있다.

(18) 개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아이야.

(19)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말씀만 옳다고 하시니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어.

(20)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잖니?

(18-20)의 ‘자기’, ‘당신’, ‘저’ 등은 선행 명사 또는 선행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의 기능은 선행어를 대신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어와 공지시(coreference) 관계를 형성하면서 선행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재귀 대명사, 재귀사(再歸辭)라고 한다. 재귀사들은 현장의 상황 지시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언어 맥락 지시에만 사용된다.

다음의 (21)에서 ‘그것’과 ‘거기’가 가리키는 것은,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도 아니고 언어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대상도 아니다.

(21) 영아: (문을 나가면서) **그것** 잊어버리지 마.

순이: 알았어. 그럼 **거기**서 만나.

(21)에서 가리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알고 있는 사물과 장소이다. 이러한 지시 기능을 상맥(想脈) 지시라고 한다.⁴⁾ 상맥 지시에서는 화자

4) 이러한 지시는 ‘상념적 지시’라고도 하는데, 선행 발화는 없지만, 현재의 대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거나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이다. 또는 화자나 청자에게 중요한 대상이어서 언급함이 없이도 늘 의식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가 있다

와 청자의 정보 맥락이 참조되어 세계의 대상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진다. 지시어에 대한 청자의 해석과 지시물 확인도 정보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국어 상황 지시어의 체계

국어의 가리킴 말들은 대화 현장에 존재하는 사물을 원근 거리에 따라 지시하는 상황 지시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상황 지시어들을 그 의미 내용에 따라 ① 인칭 지시어 ② 사물 지시어 ③ 장소 지시어 ④ 방향 지시어 ⑤ 시간 지시어 ⑥ 상태 및 동작 지시어 등으로 하위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상황 지시어들의 살펴보기로 한다.

3.1. 인칭 지시어

사람을 가리키는 국어의 인칭 지시어는 1인칭 지시어, 2인칭 지시어, 3인칭 지시어가 수와 존대 관계에 따라 발달되어 있고 이밖에 부정칭 지시어가 존재한다.

일인칭: 나, 우리, 저, 저희

이인칭: 너, 너희, 댁, 당신, 어르신

삼인칭: 이애, 그애, 저애, 그, 이이, 그이, 저이, 이분, 그분, 저분

부정칭: 아무

위에 제시된 인칭 지시어들을 보면, 화자와 청자를 가리키는 일인칭, 이인칭의 지시어들은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삼인칭 지시어들은 사물, 장소, 방향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 ‘그’, ‘저’가 결합된 형식이다. 복수 지시어도 일인칭과 이인칭의 경우는 ‘우리’, ‘저희’, ‘너희’ 등의 지시어가 발달되어 있고, 이들 복수 지시어에 복수 접미사 ‘-들’이 첨가되어 ‘우리들’, ‘저희들’,

‘너희들’로도 쓰이는데, 삼인칭의 경우는, 별도로 복수 지시어가 없고, 복수 접미사 ‘-들’로 복수를 나타낸다. 국어의 일인칭, 이인칭의 복수 지시어들은 단수의 대상에 대해서도 쓰이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 아버지’, ‘우리 누나’, ‘우리 마누라’ 등이나, ‘너희 아버지’, ‘너희 딸’, ‘너희 나라’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국어의 인칭 지시어는 존대 관계에 따른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일인칭 지시어에는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인칭 지시어 ‘저’, ‘저희’가 있고, 이인칭과 삼인칭에는 존대의 의미를 지닌 지시어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존칭 지시어들은 낮은 사람이나 아래 등급에 속하는 사람을 얼마간 대우해 주는 정도이고, 존대의 의미가 크지 않아서 두루 쓰이지는 않는다. 이인칭 지시어 ‘당신’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지만, 그 밖의 상대에 대해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으며, ‘댁’, ‘어르신’ 등도 쓰임이 제한되어 있다. 극존칭의 상대이거나, 사회적,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장님’, ‘부장님’ 등의 사회적 관계의 호칭이나 ‘어머니’, ‘아버지’, ‘형님’ 등의 친족 관계 호칭이 사용된다. 하위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과장’, ‘이 선생’ 등의 호칭이 사용된다.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지시어들은 모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어 들인데,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 지시어로 ‘아무’가 있다.

3.2. 사물 지시어

사물 지시어에는 화자 근칭에 ‘이것’, 청자 근칭에 ‘그것’, 화청자 원칭으로 ‘저것’이 있고, 부정칭의 사물 지시어로 ‘아무것’이 있다. 사물 지시어에서도 복수 표시 ‘-들’이 붙어 복수를 나타내지만, 국어의 경우 사물 지시어에서 단수와 복수의 구별은 엄격하지 않다. 복수의 사물도, (22)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표시가 없이 지시되는 경우가 많다.

(22) (연필 2자루를 주면서) **이거** 너 가져.

사물 지시어들은 사물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일, 사건, 화자와 청자의 담화 자체, 즉 이야기나 말을 지시하기도 한다.

(23) 영이: 순이가 또 학교에 안 갔어. 매일 오락실에 앉아 있어.

순이 언니: ㄱ. **그**계 문제야.

ㄴ. **그**걸 내가 믿을 줄 아니?

ㄷ.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23ㄱ)에서는 영이가 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언어 맥락 지시를 수행하고 있고, (ㄴ-ㄷ)에서는 영이의 말 자체를 지시하고 있다.

3.3. 장소 지시어

화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변의 장소를 가리키는 장소 지시어도 ‘이’, ‘그’, ‘저’에 공간 개념의 명사가 결합된 형식으로 구성되며, 화자 근칭으로 ‘여기’, ‘이곳’, 청자 근칭에 ‘거기’, ‘그곳’이 있으며, 화자, 청자 원칭에 ‘저기’, ‘저곳’이 있다. 장소 지시어에도 불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부정칭 지시어로 ‘아무데’가 있다.

3.4. 방향 지시어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지시어에도 ‘이’, ‘그’, ‘저’가 결합되어 형성된 지시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리’, ‘그리’, ‘저리’와 ‘이쪽’, ‘그쪽’, ‘저쪽’ 등이 있다.

3.5. 시간 지시어

시간 지시어는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선·후행의 시

간을 지시하는데, 시간, 일, 월, 연 등의 시간 단위별로 구별하여 수행된다. 시간 단위의 지시에서는 현재 화자의 발화시가 기준이 되며, 일 단위는 현재 화자가 속한 날이 기준이 되고, 월 단위의 지시에서는 현재 화자가 속한 달이, 그리고 연 단위에서는 화자가 속한 해가 기준이 되어 지시가 이루어지며, 각각의 지시를 수행하는 지시어가 다음과 같이 발달되어 있다.

시간 단위: 이제, 아까, 다음, 지금, 이때, 접때 등

일 단위: 오늘, 어제, 내일, 그제, 그그제, 모레, 글피 등

월 단위: 이달, 지난달, 다음달, 지지난달, 다다음달 등

연 단위: 올해, 작년, 내년, 재작년, 내후년,

대화 현장 맥락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지시의 경우, 시간 지시는 화자 근칭 지시어 ‘이때’와 화자 원칭 지시어 ‘접때’만이 쓰이며, 청자 근칭 지시어인 ‘그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장의 시간을 화자와 청자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 맥락 지시에서는 ‘이때’와 ‘그때’가 쓰이고, ‘접때’는 쓰이지 않으며, 상맥 지시에서는 ‘그때’만이 쓰인다.

3.6. 상태 및 동작 지시어

상태나 동작을 지시하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등도 현장의 상황 지시 이외에, 언어 맥락 지시, 상맥 지시의 용법을 지니고 있다. 사물 지시에서와 동일하게, 상황 지시에서는 ‘이’, ‘그’, ‘저’ 계열이 모두 쓰인다. 그런데 언어 맥락 지시의 경우는, 사물 지시에서와는 달리, ‘이’ 계열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들 지시어에도 일반 형용사나 동사와 동일하게 관형형, 연결형, 부사형 등의 활용형이 다음과 같이 두루 존재한다.

이렇다, 이러다: 이런, 이러는, 이렇게, 이려고, 이래서, 이러니까,
 이래도, 이러면 등

그렇다, 그러다: 그런, 그러는, 그렇게,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그러므로, 그리고 등

저렇다, 저러다: 저런, 저러는, 저렇게, 저려고, 저래서, 저러니까,
 저래도, 저러면 등

이들 활용형들 가운데서도 ‘그’ 계열의 ‘그리고’, ‘그러므로’ 등은 상황 지시에
 는 쓰이지 않고, 언어 맥락 지시에만 쓰인다. ‘그리고’의 경우는 ‘이리고’, ‘저
 리고’ 등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태 및 동작 지시어들이 지시 수행에서 제약을 보여 주는 경
 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어의 상태 및 동작 지시어는 매우 체계적
 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마무리

종래에 ‘대명사’로 범주화되어 온 ‘나’, ‘너’, ‘이것’, ‘저기’ 등과 같은 말들은
 가리킴, 즉 지시의 기능을 본질로 한다. 고유 명사나 수식절을 지닌 명사구,
 채귀사 등도 지시 기능을 지니지만, 언어의 지시 기능 가운데 가장 일차적인
 기능은 원근 거리에 따른 상황 지시의 기능이다. 모든 언어에는 화자를 기점
 으로 하여 원근 거리에 따라 대화 현장의 대상을 가리키는 상황 지시어가 존
 재하는데, 국어의 경우, 상황 지시어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국어에는 사람,
 사물, 장소뿐만 아니라, 상태나 동작 등에 대해서도 원근 거리에 따른 지시어
 가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대명사의 범주 설정이 타당
 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에 국어의 가리킴 말을 모두 포괄하여 ‘상황 지시어’
 로 범주화하였다.

국어의 상황 지시어들은 대화 현장 맥락에서 수행되는 상황 지시의 기능

이외에 언어 맥락에서 수행되는 언어 맥락 지시, 정보 맥락에서 수행되는 상 맥 지시의 기능을 지닌다. 상황 지시에서는 ‘이’, ‘그’, ‘저’가 모두 사용되지만, 언어 맥락 지시에서는 ‘이’와 ‘그’가 쓰이며, 상맥 지시에서는 ‘그’만 쓰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국어의 상황 지시어들을 내용에 따라 하위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